

현대 패션에 나타난 에스닉(Ethnic) 특성 분석에 관한 연구 -2005년 S/S부터 2010년 F/W까지 파리·밀라노 컬렉션을 중심으로-

김 영 삼[†]

중앙대학교 의류학과

A Study on Ethnic's Major Characteristics Expressed in Modern Fashion -Focus on 2005 S/S - 2010 F/W Paris, Milan Collection-

Young-Sam Kim[†]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ung-Ang University

접수일(2010년 9월 29일), 수정일(1차 : 2010년 10월 27일, 완료일 : 2010년 10월 28일), 게재확정일(2010년 11월 9일)

Abstract

Ethnic tendency follows the current political, economical, and cultural influence eastwards, highlighting films, architecture and interiors as well as fashion. With this tendency, the ethnic outfits are expressed by various styles. This study analyzes the features of current ethnic styles with 1,535 ethnic image pieces from 2005 S/S to 2010 F/W of Prêt-à-Porte in Paris and Milan. First, 'ethnic' is to refer to the distinct features of an ethnic group or a country. 'Ethnic look' refers to the adaptation or re-arrangement of various ethnic group's traditional costumes, dyeing, textile, patterns, color, silhouettes, and accessories. Second, the most popular ethnics in the modern fashion is the African style, followed by India, Japan, China, and Latin America in both collections. Third, the proportion of ethnics decreased, 2005 (14.9%), 2006 (12.8%) and 2007 (8.2%). In 2008 the proportion increased again. 2010 (27.3%) and compared 2010 to 2007, it increased by 20%. By season, S/S had 1.4 times more ethnic styles than F/W with the prevalence of African and Indian styles. Fourth, as of 2005, the ethnic style became colorful and went through changes to combine various images. This is from the polycentric tendency of co-existing various styles with a prevalence of low tone and various colors. It also shows warm colors in front to show a sense of nature.

Key words: Ethnic fashion, Milan collection, Paris collection, Characteristics of ethnic fashion; 에스닉 패션, 밀라노 컬렉션, 파리 컬렉션, 에스닉 패션의 특성

I. 서 론

현대 패션은 건축, 조각, 회화, 음악 등 다양한 문화 영역과 마찬가지로 아주 다양하고 복합적인 경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21세기의 디지털문화로 대표될 수 있는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간생활과 인간의 사고체계의 전환을 가져왔다. 이러한 급격한 사회문

화적 변화는 기존의 가치체계의 패러다임 변화를 가속화시켜, 모든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패션은 인간의 사회문화적 변화를 반영하여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고 그 흐름의 유기적 변화, 발전을 거듭한다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패션에 나타나는 에스닉 경향 역시 다양한 내재적 요소를 바탕으로 현대 패션에 복합적으로 표출됨으로써 다양한 현대 패션의 흐름을 창조하고 있다.

최근 에스닉 패션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에

[†]Corresponding author

E-mail: proyskim@empas.com

스닉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조민정, 2006), 에스닉 텍스타일에 관한 연구(김난희, 2006; 최문정, 2007), 에스닉 패션 특성 분석에 관한 연구(오세희, 2006; 최영옥, 2005) 등이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에스닉 패션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왔으나,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특정 분야 및 21세기 초에 국한되어 보여지는 에스닉 패션에 관한 연구로써 최근 에스닉 패션의 경향에 대한 분석과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2005년 이후 최근 6년간 현대 패션에 나타난 에스닉 패션의 변화추이 및 현대 패션 디자이너의 작품에 표현된 에스닉 요소의 변화에 대해 분석해 봄으로써 지속적으로 패션에 수용되고 있는 에스닉 패션의 방향을 예측하기 위한 기초자료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할 수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이론적인 연구와 실증적인 연구를 병행하였다. 이론적 배경은 학술단체에 게재된 논문 및 국내·외 단행본, 간행물, 관련서적을 참고하였다. 실증적 연구를 위해서는 컬렉션에 발표된 패션 디자이너의 작품을 통한 시각적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국내·외 패션 전문 잡지의 밀라노와 파리의 프레타포르테 사진, 인터넷(www.firstview.com) 등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검토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연구대상의 시기가 길고 자료가 방대하여 2005년 S/S부터 2010년 F/W까지 최근 6년간 유럽의 대표적인 밀라노, 파리의 컬렉션 각 12회, 총 24회의 컬렉션 중 매 시즌마다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파리 25명, 밀라노 25명 총 50명의 디자이너 의상작품을 선별하였다. 이론적 고찰과 참고문헌을 통해 패션 디자인 전공자 두 사람이 검토하여 에스닉 요소를 활용한 디자인 1,535점의 작품을 선정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에스닉에 대한 일반적인 고찰

에스닉(Ethnic: 민족풍)에 대한 정의를 밝히고자 사전적인 개념을 살펴보면 에스닉이란 ‘민족의’, ‘종족의’ 또는 ‘민족 특유의’라는 의미의 형용사이며, ‘민족의’라는 뜻 외에도 ‘이교도의’라는 의미가 담겨있다(두산동아편집부, 2006).

일반적으로 비기독교권 즉, 이슬람교, 불교 기타의 종교를 갖는 지역, 구체적으로 중동에서 아시아를 중심으로 하여 잉카 등의 고대아메리카나 아프리카의 민

족 스타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 중에서도 지역적 민족 의상이 가지고 있는 소재나 독특한 색상, 수공예적 디테일 등으로 민간전승적인 문화의 스타일, 즉, 프리미티브한 경향을 보이는 것을 에스닉이라고 한다(이상례, 1994). 따라서, 에스닉이라 하는 것은 민족적 양식, 민족의 풍, 또는 민족 특유의 양식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이렇듯 에스닉은 민족 집단이나 각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공유하며 타문화와 뚜렷이 구별되는 독특한 양식을 차용하여 현대 디자인의 이미지로 응용되어 표현되는 양식이다. 에스닉풍 복식의 개념이 복식사전에는 “에스닉 룩이란 민족복 스타일로서 유럽 민족 이외의 세계 여러 나라 민족 고유의 복장을 힌트로 한 것이다. 20세기 초 뿔 뿔아레(Paul Poiret)의 작품에서 동양 취미가 강한 이런 종류의 룩을 볼 수 있으며, 1970년대 후반 많은 디자이너에 의해서 여러 가지 에스닉 룩이 발표되었다(라사라교육개발원, 1992).”고 되어 있다. 즉, 에스닉 룩(ethnic look)이란 자국에서 볼 수 없는 타문화권의 신비롭고 매력적인 요소, 이국적인 이미지들에서 얻어지는 유럽민족 이외의 세계 여러 나라 고유의 민족 의상 및 염색, 직물, 문양, 자수, 색채, 실루엣, 액세서리 등의 패션 디자인 요소들을 차용하고 전체 또는 일부에 재배치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이러한 다른 나라의 매력적인 요소를 표현하는 에스닉 룩은 급속히 변화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도시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이국적인 이미지의 전원이거나 미개발국의 이미지를 표현하여 도시 생활에서 활력을 찾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서봉하, 2004). 세계 각지의 문화권마다 각자의 민족 복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주의적이며 합리적인 모더니즘적 성격이 강한 현대적 감각의 서구 패션은 단순화, 대중화와 더불어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왔다. 이러한 가운데 에스닉 룩이 현대 패션의 주제로 꾸준히 등장하고 있는 것은 20세기 말부터 개방성·다양성·개성이 존중되는 다원주의 사회로 가면서 다른 시대와 다른 문화로부터 이미지를 차용하여 절충하려는 포스트모더니즘적인 양상이 복식에도 받아들여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서양의 하이브리드 및 에콜로지적 영향으로 에스닉 룩은 자국민이나 자민족에서 볼 수 없는 타민족이나 타국의 풍물과 정서를 동경함으로써 서양 중심의 현대 복식에 비서양 지역의 전통 복식의 특징과 요소가 절충(折中)되어 현대적으로 다시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2. 지역별 민족 복식의 종류와 특징

1) 인도 지역의 민족 복식

고대인도의 역사에 나타나는 인도 복식의 형태는 ‘봉제되지 않은 한 장의 천을 허리에 두르거나 가슴을 감아주는 형식’이었다. 이러한 간단한 형태가 점차 몸체를 감는 형태로 발전하여, 현재의 도티(Dhoti) 및 사리(Sari), 오드리(Odrami), 두파타(Dupatta)와 같은 베일, 터번으로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홍나영, 2004). 사리(Sari)는 길고 넓은 천 하나를 몸에 감아 상체와 하체 모두를 가리는 방식으로 착용된다. 튜닉 스타일의 의복인 살와르 까미즈(Slawar Kamiz)는 이슬람의 여성들이 입던 의복에서 근맥을 갖고 있는 의복으로 긴 셔츠를 까미즈(Kamiz), 헐렁한 바지를 빠자마(Pajama)라고 하여 건 또는 머슬린으로 만들어진 오르니(Orhni)라고 불리는 일종의 스카프형 쓰개와 함께 착용되었다. 두파타(Dupatta) 또한 오드리와 비슷한 형태로 어깨 위에 드리우는 형태이다. 오르니와 두파타가 여성들이 착용하는 머리 장식이라면 남성들이 착용하는 머리 장식으로는 터번이 대표적이다. 터번은 주로 흰색위주의 화려한 색의 실크나 면으로 만든다. 가그라(Ghaghra)는 사리와는 달리 바느질을 한 의복으로 펼치면 원형모양이 되는 큰치마를 일컫는데 화려한 자수로 장식되어지고 주름이 잡힌 발목길이의 스커트이다(이옥순, 2007). 인도 여성의 장신구는 화려하고 다양하기로 유명한데, 귀걸이, 목걸이, 코걸이, 반지, 팔찌 등 신체의 모든 부위를 장식하는 독특한 장신구들이 있다.

2) 중동(中東) 지역의 민족 복식

사우디아라비아(Saudi Arabia)는 이슬람교의 국가로 국토 대부분이 사막지대로 고온 건조한 사막기후이다. 이러한 기후로부터 몸을 보호하려는 특성과 이슬람권의 특성으로 인하여 얼굴과 신체를 보이지 않는 복식을 착용하였는데 이에 대표적인 복식이 베일이다. 베일은 지역에 따라 카리지(Khaleeji), 니캅(Niqab), 차도르(Chador), 키마르(Khimar), 샤이라(Shayla), 부르카(Burqa), 히잡(Hijab) 등 착용하는 명칭과 종류가 다양하다(퍼트리샤 리프 애너월트, 2008). 또한, 스팅글, 금속사, 구슬 등으로 장식하여 화려한 외관을 만들고, 헤나(henna)나 타투(Tattoo)로 장식하였다(홍나영, 2004).

3) 한국, 중국, 일본 지역의 민족 복식

한국의 한복, 중국의 치파오, 일본의 기모노가 대

표적인 의상이다.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하고, 여름에는 고온 다습하며, 겨울은 건조한 대륙성 기후여서 이에 적응하기 위하여 쉽게 입고 벗을 수 있는 복식과 앉아서 생활하는 문화에 적합하도록 품이 넓고 여유가 많도록 발달한 것도 특징이다. 한국의 대표적인 민족 의상인 한복은 상의와 하의가 분리된 복식으로 여자 한복은 치마와 저고리, 남자 한복은 바지와 저고리를 기본으로 저고리는 길, 셔츠, 소매, 깃, 동정, 고름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여자의 경우 끝동이 달리기도 한다(홍나영, 2004). 또한 장신구로는 쓰개류인 조바위, 아얌, 족두리, 화관 등과 비녀, 노리개 뒤꽂이, 땡기가 있다. 색상은 화려한 원색을 사용하며 여기에 지위에 따라 금박을 찍어서 장식하는 경우도 있다. 중국은 지역이 광대하여 습윤 기후, 반 건조 기후, 건조 기후 등이 다양하게 나타나며, 지역의 크기와 민족의 수도 다양하게 변해왔다. 색상은 음양오행설에 따라 오방색(五方色)을 기본으로 하며 문양은 동물, 식물, 기하학무늬를 이용하여 화려하게 자수하는 경우가 많다. 각 문양마다 상징하는 의미가 달라 기원하는 의미로 옷에 새겨 넣기도 하였다.

중국의 전통 복식은 인체의 곡선을 살린 드러낸 타이트한 실루엣인 치파오와 직선적인 스트레이트 실루엣으로 나뉘지며 대칭의 사선 여밈, 끈 매듭단추, 옆트임, 만다린 칼라 등으로 들 수 있다(진경옥, 이민정, 2003).

일본은 섬나라로 대체로 온화하며 온대성 계절풍 기후로 습도가 높은 편이므로, 전통복인 기모노도 깃, 소매부리, 옷자락 등에 개방 부분이 많으며 또한, 직선으로 재단하여 간략하게 만드는 남방계 의복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대표적인 일본의 전통 복식 기모노는 원피스 형식으로 발목까지 내려오는 길이에 소매는 길고 넓으며 목의 부분이 V자로 파여져 앞이 트여있으며 단추나 끈 없이 왼쪽 옷자락을 오른쪽으로 여며 허리에 오비를 두르는 한 장의 기본패턴으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장미숙, 1999). 검은 기모노의 전통소재로 사용되었으며, 기모노의 외형적으로 직선적이고 단순한 면을 보완하기 위해 자수와 염색을 이용한 화초문, 난초, 매화, 대나무 등과 나비, 학, 사군자의 모양을 형상화하기도 하였다.

4) 북아메리카 및 남아메리카 지역의 민족 복식

북아메리카 원주민은 아메리칸 인디언을 일컫는다. 인디언 복식의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화려한 깃털로

만든 헤드드레스이다. 독수리의 깃털로 만든 헤드드레스는 독수리의 아름다움과 힘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 깃털은 용감한 행동을 한 사람들만 착용할 수 있다. 또한, 세시(Sash), 벨트(Belt), 가터(Garter), 네크레이스(Necklace) 등의 다양한 액세서리를 사용하였다(엄윤경, 1994). 북아메리카 원주민들은 부족마다 다른 종교의식에 따라 복식에 사용한 문양을 다르게 사용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그들의 염원을 빌었다. 또한 영적인 특별한 능력을 그들의 신으로부터 부여받기 위해 주술적 의미의 복식을 착용하였다(이민경, 한명숙, 1998). 남아메리카 원주민은 중앙의 안데스 지방인 페루, 볼리비아 지역 및 잉카를 일컬으며, 이 지역의 복식은 러그 또는 그 문양을 활용한 망토나 폴스커트 등의 의복을 특징으로 한다. 특히 나바호(Navajo) 아메리칸 인디언의 경우 여러 색으로 이루어진 줄무늬나 다양한 넓이의 밴드 직조기술이 발달하여 대각선, 삼각형의 형태, 노란색, 파란색과 녹색, 붉은색 등으로 표현된 활동적인 색상 및 문양과 직선, 수평선, 수직선, 직사각형, 흰색, 검은색, 회색 등으로 표현된 정적인 색상 및 문양으로 나뉘어 진다(정미실, 2002).

5) 아프리카(Africa) 지역의 민족 복식

아프리카 대륙은 동반구 남서부에 위치한 남북 양반구에 건친 세계 제2의 대륙으로 광활하고 인종도 다양한데 반해 평균 인도밀도가 매우 낮아 다른 대륙에 비해 고립된 특징의 부족문화가 발달하게 되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상반신은 나체 상태에서 목둘레선과 거의 일치하는 길이의 목걸이와 오른쪽 어깨 위에서부터 왼쪽 허리 부분까지 대각선을 걸쳐지는 기다란 장신구만을 착용한다. 장신구로는 주로 흰색의 동물뼈나 이빨, 조가비, 구슬 혹은 각종 보석들을 꿰어서 만든 것들을 착용하였으며, 하의로는 동물의 털가죽 등으로 만든 짧은 요의를 착용하고, 발목에 흰털이나 동물가죽을 두른다(황춘섭, 1995). 서아프리카의 대표적인 특징은 직기를 이용하여 옷을 만들어 입는 것인데 여기에 문양을 넣었으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문양이 줄무늬이다. 대표적인 복식으로는 판초(Pancho)형과 랩퍼(Wrapper)형이 있는데, 판초형은 두 마리의 염소가죽으로 이루어졌으며 후에 직물이 혼해지면서 직물로도 만들었으며, 랩퍼형은 남녀 모두 장방형의 천으로 되었으며, 몸을 감고 남은 부분을 어깨 위로 걸쳐 올려서 늘어뜨리거나 몸을 감은 후 왼쪽 옆에서 양끝 자락을 모아 묶거나 비틀어서 그 매듭을 앞으로 집어

넣는다. 전반적으로 아프리카인들은 장식에 대한 강한 욕구로 사냥한 동물의 뼈를 장신구로 이용하였으며 얼룩말과 같은 신체 채색이나 피부에 상처를 내어 만드는 산흔을 통한 장식을 하였으며, 주술적인 의미가 강한 색상인 붉은색상과 흰색을 주로 사용하였다(B'er'enice Geoffroy-Schneiter, 2001). 또한 황토를 섞어 팔, 다리에 격자무늬, 얼룩말무늬 등의 형태를 그려넣기도 하였다.

III. 2005~2010년 현대 패션 디자이너 작품에 표현된 에스닉 패션의 특성 분석

1. 에스닉 경향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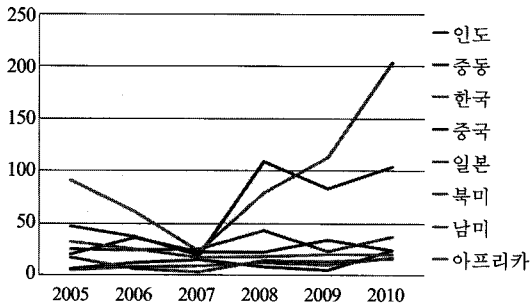
2005년 S/S부터 2010년 F/W까지의 밀라노, 파리 컬렉션을 여덟가지 민족 복식 분류에 따른 에스닉 경향의 연구는 다음과 같다. 에스닉 패션의 선호도는 2005년 227작품(14.9%), 2006년에 193작품(12.8%), 2007년 117작품(8.2%)으로 3년 동안은 점차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08년 283작품(18.3%), 2009년 285작품(18.5%), 2010년 430작품(27.3%)으로 2009년까지의 점진적 증가와 2010년에는 급격한 증가추세를 볼 수 있다. 지역별 비중은 아프리카풍 559작품(35%), 인도풍 381작품(24.1%), 일본풍 165작품(10.9%), 중국풍 146작품(9.7%), 남미풍 120작품(8.1%), 중동풍 58작품(4.3%), 북미풍 57작품(4.2%)으로 나타났다. 연구내용의 연도별, 시즌별, 컬렉션별 변화추이는 <표 1>과 같다. 에스닉 패션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중을 나타낸 것은 아프리카풍과 인도풍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아프리카는 2007년 이후 다른 에스닉 패션 유형보다 더 많은 양적 증가세를 가져왔다. 중동풍의 경우, 밀라노컬렉션보다는 파리 컬렉션에서 더 많이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으며, 한국풍은 다른 에스닉 경향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빈도를 차지하였다. 중국풍은 2006년 증가하였다가 그 이후 감소한 후 2009년에는 다시 증가하고 이후 감소하였다. 일본풍은 2008년 가장 많은 작품이 나타났으며, 2009년 감소하였다가 2010년 다시 증가하였다. 북미풍은 2008년 이후 이전 시즌보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남미풍은 S/S시즌보다는 F/W시즌에서 많이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에스닉 패션 경향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감소하다가 2008년을 기점으로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1> 그 원인은 2008년에 들어서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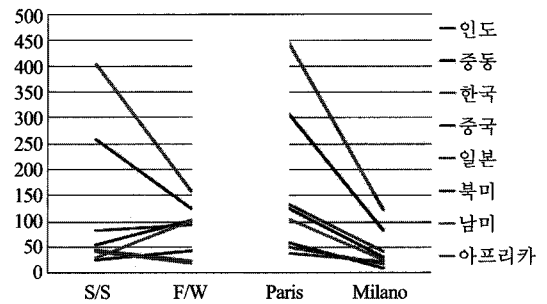
<표 1> 에스닉 패션의 년도/시즌/컬렉션별 변화추이

(n=1,535 단위: %)

	년 도						시 즌		컬렉션		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SS	FW	Paris	Milano	
인 도	45 (2.9)	35 (2.3)	17 (1.2)	101 (6.3)	81 (5.1)	102 (6.4)	262 (16.3)	119 (7.7)	304 (19.0)	77 (5.1)	381 (24.1)
중 동	4 (0.4)	10 (0.7)	13 (0.9)	6 (0.5)	3 (0.3)	22 (1.5)	20 (1.6)	38 (2.7)	54 (3.7)	4 (0.6)	58 (4.3)
한 국	3 (0.3)	6 (0.5)	7 (0.6)	10 (0.7)	8 (0.6)	15 (1.0)	36 (2.6)	13 (1.2)	33 (2.4)	16 (1.3)	49 (3.7)
중 국	18 (1.2)	34 (2.2)	20 (1.3)	20 (1.4)	32 (2.1)	22 (1.5)	49 (3.4)	97 (6.3)	121 (7.8)	25 (1.9)	146 (9.7)
일 본	23 (1.5)	22 (1.5)	23 (1.5)	41 (2.6)	21 (1.4)	35 (2.3)	77 (5.1)	88 (5.8)	129 (8.2)	36 (2.6)	165 (10.9)
북 미	15 (1.0)	4 (0.4)	1 (0.2)	12 (0.9)	11 (0.8)	14 (1.0)	39 (2.8)	18 (1.5)	45 (3.1)	12 (1.1)	57 (4.2)
남 미	30 (2.0)	23 (1.5)	15 (1.0)	16 (1.1)	18 (1.2)	18 (1.2)	24 (1.8)	96 (6.3)	100 (6.5)	20 (1.6)	120 (8.1)
아프리카	89 (5.6)	59 (3.7)	21 (1.4)	77 (4.8)	111 (6.9)	202 (12.5)	407 (25.3)	152 (9.7)	442 (27.5)	117 (7.5)	559 (35.0)
계	227 (14.9)	193 (12.8)	117 (8.2)	283 (18.3)	285 (18.5)	430 (27.3)	914 (59.0)	621 (41.0)	1,228 (78.2)	307 (21.7)	1,535 (100.0)



<그림 1> 에스닉 패션의 년도별 변화추이 도표



<그림 2> 에스닉 패션의 년도별 시즌 및 컬렉션별 도표

서 에스닉 패션 형태 중 인도풍과 아프리카풍의 에스닉 패션이 증가함을 살펴볼 수 있다. 컬렉션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파리 컬렉션의 경우, 인도, 한국, 일본, 북미, 아프리카 유형이 F/W시즌보다는 S/S시즌에 더 많은 작품이 나타났다. 또한, 파리 컬렉션과 밀라노 컬렉션을 비교하여 보면, 2010년 S/S시즌에 아프리카 유형의 작품이 급증하였다(그림 2).

2. 년도별 에스닉 패션의 특성

1) 2005년 에스닉 패션의 특성

2005년 S/S시즌에는 아프리카풍의 의상과 인도풍

의 의상이, F/W시즌에는 남미풍의 의상이 대두되었다. 아프리카풍의 에스닉 패션은 원시적인 색상 또는 혼합무늬 패턴을 강조하였고, 금속목걸이와 벨글과 같은 토속적인 악세사리를 활용하여 아프리카 패션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인도풍의 의상은 동방풍 무희의 의상에서 착안하여 표현한 디자인이 등장하였다. 아프리카풍은 특히 S/S시즌의 로베르토 까발리(Roberto Cavalli)와 겐조(Kenzo)에서 등장하였다. 로베르토 까발리<그림 3>는 자연무늬와 동물무늬를 혼합한 패턴과 다양한 악세사리를 활용한 반면, 겐조<그림 4>는 블랙의 의상에 원색의 토속적인 문양 및 패턴을 부분적으로 사용하여 풍성하고 화려한 아프리카풍의 의

상을 표현하였다. 인도를 표현한 여러 디자이너 중 안토니오 마레스(Antonio Marras)<그림 5>와 베로니크 로이(Veronique Leroy)의 의상은 상의를 탑과 조끼를 활용한 디자인이 등장하였고 하의를 허리 간격이 크고 폭이 넓은 바지가 등장하여 인도 전통 무희의 복식을 활용한 디자인이 나타났다. 한국, 중국, 일본의 에스닉 유형은 주로 파리 컬렉션의 일본 디자이너들에 의해서 나타났다. 중국풍은 S/S시즌 이세이 미야키(Issey Miyake)가 매쉬 소재를 활용한 시스루 록과 화이트톤의 치파오를 응용하여 현대적으로 표현하였고, 중국 샷가를 악세사리로 활용하여 중국풍의 특징을 강조하였다(그림 6). 또한, 한복 형태의 속치마를 피부가 보이는 소재를 사용하여 동양 여성의 관능미를 내포하고 있는 한국풍의 작품을 나타냈다(그림 7). 일본풍은 S/S시즌 겐조는 기모노에 허리 장식인 오비를 얇은 끈으로 여러 번 감는 형태로 표현하였으며, 연등을 연상케 하는 가방을 같이 착장하여 일본풍의 에스닉 스타일을 선보였다(그림 8). F/W시즌 겐조는 자연색을 활용한 긴 코트에 자연무늬의 패턴을 나열하고 중동 특유의 머리 장식을 제시, 이슬람 국가권민속 의상인 ‘히잡’과 유사한 디자인으로 주로 무채색을 사용하는 중동 에스닉풍을 과감하게 표현하였다(그림 9). F/W시즌에는 남미의 의상이 강세를 이루었는데, 남미를 표현한 디자이너는 주로 파리에 비중이 많았으며, 특히 이세이 미야키<그림 10>의 경우 판초를 변형한 니트에 원색의 큰 무늬를 넣어, 화려하고 독특한 방식으로 남미풍을 표현한 의상을 선보였다. 2005년 에스닉 패션을 표로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2) 2006년 에스닉 패션의 특성

2006년은 2005년보다 현저히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아프리카풍의 의상과 인도풍의 의상이 다른 에스닉 유형보다 많이 나타났으며, 중국풍의 의상이 대거 등장하였다. 아프리카풍의 의상은 S/S시즌의 안젤로 마르니(Angelo Marani)와 에트로(Etro), 츠모리 치사토(Tsumori Chisato) 및 F/W시즌의 이세이 미야키 등의 의상에서 등장하였다. 검정색상의 치마에 원색의 구슬을 사용하여 목과 가슴을 화려하게 장식하는 마사이족의 전통 구슬 세공품인 마시빠이를 활용한 아프리카풍의 의상을 이세이 미야키<그림 11>에서 볼 수 있었다. 중국풍의 의상은 S/S시즌의 레오날드(Leonard)와 F/W시즌의 아이스 버그(Iceberg)와 겐조의 의상에서 등

장하였다. 겐조<그림 12>는 허리선을 높인 외투를 활용하여 일부 폭이 넓은 7부 소매를 사용하였고 부분적으로 꽃무늬의 화려한 자수를 놓아 동양적인 중국풍의 느낌을 더했다. 인도풍 의상으로 S/S시즌 에르메스(Hermes)<그림 13>가 짙은 붉은색 계열의 하렘 팬츠와 민소매 조끼에 붉은색 포인트를 활용하여 인도풍을 나타냈다. 일본풍 의상으로는 기모노 V넥 라인과 허리 장식의 오비에 학모양 자수를 넣어 동양적 색채를 가미한 S/S시즌의 주카(Zucca)<그림 14>의 작품이 있었다. 2006년 중동적인 이미지는 대체로 차도르를 활용한 표현이 주를 이었지만, 전체적인 이미지는 주름과 소재의 혼합을 활용한 여러 가지 스타일이 혼재되었다고 할 수 있었다. 특히 F/W시즌 언더커버(Under Cover)<그림 15>에서는 의상을 검은색으로 통일하고, 차도르와 각종 악세사리를 요소별로 다양하게 활용하였다. 2006년 에스닉 패션을 표로 정리하면 <표 3>와 같다.

3) 2007년 에스닉 패션의 특성

2007년은 아프리카, 인도 의상과 더불어 일본풍의 의상이 대거 등장한 해였다. 겐조<그림 16>는 S/S시즌 서아프리카의 전통복식인 렵퍼를 활용하였다. 파스텔 컬러의 패치 무늬를 헤드랩과 스커트 랩에 표현하여 서아프리카의 이국적인 멋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였다. 인도 의상은 S/S시즌에 다양하게 제시되었는데, 특이한 점은 이질적 원단의 대거 사용으로 들 수 있다. 막스마라(Max Mara)는 광택이 있는 부드러운 소재를 사용하고, 양옆에 주름 장식을 이용하여 인도풍의 느낌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였다(그림 17). S/S시즌에는 가부키화장과 일장기를 모티브로 하는 디자인을 콤데가르손르(Comme des Garçons)<그림 18>에서 선보였고, F/W시즌 츠모리 치사토<그림 19>의 작품에서는 치파오의 여밈, 파도와 구름, 꽃 등을 이용한 동양적 이미지의 자수의 활용, 무채색의 광택있는 소재에 골드색상의 포인트를 강조하여 중국풍의 에스닉을 나타내었다. 남미풍 의상으로는 S/S시즌 막스마라<그림 20>는 무채색 계열의 회색 컬러와 판초를 변형하여 남미풍의 에스닉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2007년 에스닉 패션을 표로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4) 2008년 에스닉 패션의 특성

2008년 컬렉션에서는 인도와 일본, 아프리카의 의상이 가장 높은 빈도로 등장하였는데, 에스닉 유형 중

<표 2> 2005년 에스닉 패션

시 즌	S/S		S/S	
유 형	아프리카	아프리카	인 도	중 국
디자인				
디자이너	<그림 3> Roberto Cavalli	<그림 4> Kenzo	<그림 5> Antonio Marras	<그림 6> Issey Miyake
컬렉션	Millano	Paris	Millano	Paris
특 성	원색의 혼합무늬와 토속적인 악세사리를 활용한 디자인	토속적인 무늬와 다양한 악세사리를 활용한 디자인	인도 전통 무희 의상을 활용한 디자인	매쉬 소재를 활용한 화이트톤의 치파오를 응용한 디자인
시 즌	S/S		S/S	F/W
유 형	한 국	일 본	중 동	남아메리카
디자인				
디자이너	<그림 7> Issey Miyake	<그림 8> Kenzo	<그림 9> Kenzo	<그림 10> Issey Miyake
컬렉션	Paris	Paris	Paris	Paris
특 성	한복형태의 속치마를 활용한 디자인	기모노를 응용하고 허리 장식인 오비를 얇은 끈으로 표현한 디자인	자연무늬의 패턴을 나열하고 이슬람 국가권 민속 의상인 '히잡'을 활용한 디자인	판초를 변형한 니트에 원색의 큰 무늬를 넣어, 화려하고 독특한 방식으로 표현한 디자인

인도 의상이 가장 높은 빈도로 등장하였다. S/S시즌 에 트로<그림 21>에서는 기장이 짧고 연미복 형태의 자켓과 풍성한 실루엣의 하렘팬츠가 페이즐리 프린트와 함께 현대적으로 재해석되었고, 에르메스<그림 22>에서는 한쪽어깨를 감싸는 방식의 사리의 실루엣과 골드색상의 터번을 형상화한 머리장식, 메탈릭한 밴글을 착용하여 인도풍의 에스닉룩을 고급스럽게 표현

하였다. 아프리카 풍의 의상은 S/S시즌의 크리스찬 디올(Christian Dior)<그림 23>작품에서 볼 수 있는데, 호피 무늬 패턴을 접목시킨 슬림한 드레스에 강인하고 화려한 메이크업을 통해 생명력 넘치는 아프리카 에스닉 패션을 표현하였다. 일본풍의 의상은 F/W시즌 겐조<그림 24>에서는 전년도와 유사하게 무채색의 흰색, 회색, 검정색과 일장기의 붉은색을 활용한 디자인

<표 3> 2006년 에스닉 패션

시 즌	F/W	F/W	S/S	S/S	F/W
유 형	아프리카	중 국	인 도	일 본	중 동
디자인					
디자이너	<그림 11> Issey Miyake	<그림 12> Kenzo	<그림 13> Hermes	<그림 14> Kenzo	<그림 15> Under Cover
컬렉션	Paris	Paris	Paris	Paris	Millano
특 성	길이가 긴치마와 원색의 테슬을 이용한 디테일	허리선을 높인 외투를 활용하여 일부 폭이 넓은 7부 소매를 사용하였고 꽃무늬의 화려한 자수를 활용	짙은 붉은색 계열의 하렘팬츠와 민소매 조끼에 붉은색 포인트 활용	기모노 V네크라인과 허리 장식의 오비에 학모양 자수를 넣어 동양적 색채를 가미함	의상을 검은색으로 통일하고, 차도르와 각종 악세서리를 요소별로 다양하게 활용

<표 4> 2007년 에스닉 패션

시 즌	S/S	S/S	S/S	F/W	S/S
유 형	아프리카	인 도	일 본	중 국	남아메리카
디자인					
디자이너	<그림 16> Kenzo	<그림 17> Max Mara	<그림 18> Comme des Garçons	<그림 19> Tsumori Chisato	<그림 20> Max Mara
컬렉션	Paris	Millano	Paris	Millano	Millano
특 성	원색의 패치 형상의 무늬를 부드러운 파스텔 컬러로 표현	광택이 있는 부드러운 소재를 사용하고, 양옆에 주름 장식을 이용	가부키 화장과 일장기를 모티브로 하는 디자인	치파오의 여밈의 활용 및 무채색의 광택있는 소재에 골드색상의 포인트를 강조	무채색 계열의 회색 컬러와 판초를 변형

으로 절제되고 유동적인 선을 표현하였고, 기모노의 깃을 활용, 과장하여 목 부분에서 시작된 깃이 어깨선을 넘어 끝이나는 형태의 의상을 선보였다. F/W시즌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 Westwood)<그림 25>의

작품에서 북아메리카 인디언 특유의 땀은 헤어스타일과 거친 느낌의 면이나 모 소재 위에 원색 계열의 페인팅으로 북미 인디언의 착장을 표현하였다. 2008년 에스닉 패션을 표로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표 5> 2008년 에스닉 패션

시 즌	S/S	S/S	S/S	F/W	F/W
유 형	인 도	인 도	아프리카	일 본	북아메리카
디자인					
디자이너	<그림 21> Etro	<그림 22> Hermes	<그림 23> Christian Dior	<그림 24> Kenzo	<그림 25> Vivienne Westwood
컬렉션	Millano	Paris	Paris	Paris	Paris
특 성	연미복 형태의 자켓과 풍성한 실루엣의 하렘팬츠가 페이스리 프린트와 현대적으로 재해석	한쪽어깨를 감싸는 방식의 사리의 실루엣과 골드색상의 터번을 형상화한 머리 장식, 메탈릭한 뱅글을 착용	동물무늬 패턴에 주름을 들어간 슬림한 드레스에 독특하고 화려한 눈화장	무채색의 흰색, 회색, 검정색과 일장기의 붉은색을 활용 기모노의 깃을 과장하여 변형	북아메리카 인디언 헤어스타일 거친 느낌의 면이나 모 소재 위에 원색 계열의 페인팅 활용

5) 2009년 에스닉 패션의 특성

2009년은 인도풍의 의상과 아프리카풍의 의상이 대거 등장하였다. 아프리카풍의 의상은 S/S시즌 바라바라 부이(Barabara Bui)와 에트로, 츠모리 치사토의 작품에서 많이 나타났다. 츠모리 치사토<그림 26>는 비비드한 컬러의 넓은 스트라이프무늬를 반복적으로 소재에 응용하여 현대 패션에 에스닉적인 요소로 절충하였다. F/W시즌에서는 에밀리오 푸치(Emilio Pucci)와 에트로,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 레오날드의 의상 등에서 아프리카풍이 등장하였다. 인도풍의 의상은 S/S시즌 에트로와 클로에(Chloe), 레오날드, 발렌티노(Valentino),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의상에서 등장하였는데, 비비안 웨스트우드<그림 27>에서는 사리를 머리에 감싸는 인도 고유의 복식 형태가 나타났다. F/W시즌에서는 발렌시아가(Balenciaga), 크리스찬디올 등에서 인도풍 의상이 제시되었다. F/W시즌 마르니(Marni)<그림 28>는 기본적으로 치파오를 대표하는 레드색상이 아닌 에메랄드색상의 실크새틴 소재를 이용하여 치파오 스타일 원피스에 꽃문양의 자수를 화려하게 수놓아 에스닉 룩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었다. 일본풍은 S/S시즌 블루걸(Blugirl)<그림 29>에서 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비치는 소재의 패브릭과 오비에 파스텔톤의 꽃들을 자수를 해 넣음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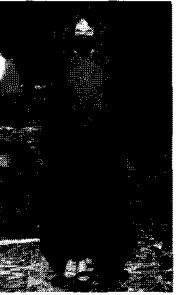
로써 일본 에스닉 특유의 은은한 색감을 표현하였다. F/W시즌 언더커버<그림 30>는 무채색의 깊이감 있는 패브릭의 소재에 중동의 차도르와 부르카를 활용한 디자인을 선보였다. 2009년 에스닉 패션을 표로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6) 2010년 에스닉 패션의 특성

2010년에는 전반적으로 에스닉 스타일의 작품이 다양하게 등장하였다.

아프리카풍의 의상은 S/S시즌 돌체 앤 가바나(Dolce & Gabbana), 드리스 반 노튼(Dries Van Noten), 이세이 미야키, 겐조, 주카 등에서 나타났다. 이세이 미야키<그림 31>는 핸드페인팅 기법을 활용한 소재와 서아프리카의 랩퍼형 복식을 응용하여 아프리카의 원시적인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레오날드<그림 32>는 현대적인 실루엣에 호피무늬 소재와 모피를 매치시켜 원시성과 현대성의 접목시킨 형태의 의상이 나타났다. 언더커버, 빅터 앤 롤프(Victor & Rolf)의 의상에서 등장하였는데 미소니(Missoni)<그림 33>의 의상에서는 투명도 높은 소재와 인도 전통 복식의 변형을 통하여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였으며, 겐조<그림 34>에서는 파스텔 컬러의 사용과 주름지고 폭이 넓은 팬츠를 가슴까지 길이를 확장시켜 올인원 형태로 변형

<표 6> 2009년 에스닉 패션

시 준	S/S	S/S	S/S	S/S	F/W
유 형	아프리카	인 도	중 국	일 본	중 동
디자인					
디자이너	<그림 26> Tsumori Chisato	<그림 27> Vivienne Westwood	<그림 28> Marni	<그림 29> Blugirl	<그림 30> Under Cover
컬렉션	Paris	Paris	Millano	Millano	Paris
특 성	원색의 폭이 넓은 스트라이프무늬를 반복적으로 디테일에 응용	사리를 머리에 감싸는 인도 고유의 복식 형태	치파오를 대표하는 레드색상이 아닌 에메랄드색상의 실크세틴 소재를 이용 및 꽃무늬 자수 디테일	전체적으로 비치는 소재의 패브릭 오비에 파스텔톤의 꽃들을 자수를 활용	무채색의 깊이감 있는 패브릭의 소재에 중동의 차도르와 부르카를 활용

하여 표현하였다. 막스마라<그림 35>는 치파오형의 블랙 원피스에 금색 자수를 화려하게 놓음으로 중후한 멋을 더해주었다. 츠모리 치사토<그림 36>는 기존의 일본 에스닉하면 떠오르는 기모노의 이미지가 아닌 일본 전통 의상 중 평민들이 입던 옷을 일본 특유의 낭만주의로 재해석하여 선보였다. 특히 낡은 원단에 빨간색의 지그재그 선 등 일본적 문양들이 에스닉적 특징을 살려주었다. 스틸라 맥카르티니(Stella McCartney)<그림 37>는 한국적 에스닉 특유의 인체에 맞게 생겨나는 주름과 화이트 컬러링을 전면 사용하여 한국적 에스닉의 색감에 그녀 특유의 구조적 디자인을 선보였다. 래오날드<그림 38>는 황토빛 원피스에 인디언풍의 프린팅과 실루엣을 아메리칸 인디언들의 전통 의상으로 표현하였다. 겐조<그림 39>는 페루나 칠레와 같은 고산지대에 사는 남미인들을 연상시키는 에스닉 룩을 연출하였다. 남미 고산지대에서 자주 사용될 만한 패턴의 원단으로 구성된 담요를 뒤덮은 듯한 실루엣의 외투와 소소하지만 민족적인 특징을 잘살리고 있는 가방과 같은 악세서리들이 겐조의 남미풍 에스닉을 잘보여준다. F/W시즌 츠모리 치사토<그림 40>는 히잡을 두른 듯한 베두인족의 여성과 같은 이미지를 직선과 지그재그로 이루어진 패턴과 위트있는 디자인으로 중동의 에스닉을 색다르게 표현하였다. 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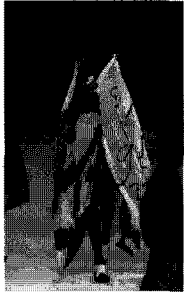

에스닉 패션을 표로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IV. 에스닉 패션의 변화추이

모든 문화 예술의 영역들이 그 시대의 반영물로 다양한 영향을 받아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듯이, 패션 역시 시대 흐름 속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시대의 정치적·경제적·예술적 반영물이자 문화적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 패션에 나타나는 에스닉 경향 또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상황 등 다양한 영향요인과의 상호 작용 속에서 전통의 이미지를 계승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활용한 다양한 에스닉 스타일을 창조하고 있다. 21세기 후반 에스닉 패션의 증가의 가장 큰 견인차 역할을 한 것은 아프리카 에스닉 패션이었으며, 그에 따른 요인으로 다음과 같은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적 영향을 들 수 있다.

정치적 영향으로는 2008년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취임이 가장 큰 영향이라 할 수 있다. 현대사에서 1970년대 미국 닉슨 대통령과 중국의 마오쩌둥 시대의 외교 시작은 미국을 비롯한 서구세계에서의 마오 룩(Mao Look)을 유행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 시기의 나타난 스탠드 칼라, 긴 소매의 검소한 박스형 재킷과 팬츠로 코디네이션한 중공의

<표 7> 2010년 에스닉 패션

시 즌	S/S	F/W	S/S	S/S	F/W
유 형	아프리카	아프리카	인 도	인 도	중 국
디자인					
디자이너	<그림 31> Issey Miyake	<그림 32> Leonard	<그림 33> Missoni	<그림 34> Kenzo	<그림 35> Max Mara
컬렉션	Paris	Paris	Millano	Paris	Millano
특 성	원색의 색상의 다양한 패턴과 핸드페인팅 기법을 활용한 문양 형태로는 서아프리카 복식을 응용	동물무늬의 부드러운 소재의 원단에 가죽과 모피를 매치	투명도 높은 소재와 인도 전통 복식의 변형	파스텔 칼라의 사용과 주름지고 폭이 넓은 팬츠를 가슴까지 길이를 확장시켜 올인원 형태로 변형	치파오형의 블랙 원피스에 금색 자수 활용
시 즌	S/S	S/S	S/S	S/S	S/S
유 형	일 본	한 국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중 동
디자인					
디자이너	<그림 36> Tsumori Chisato	<그림 37> Stella McCartney	<그림 38> Leonard	<그림 39> Kenzo	<그림 40> Tsumori Chisato
컬렉션	Paris	Paris	Paris	Paris	Paris
특 성	일본 전통 의상 중 평민들이 입던 옷을 일본 특유의 넘마주이로 재해석	주름과 화이트 컬러링을 전면 사용하여 한국적 에스닉의 색감에 그녀 특유의 구조적 디자인	황토빛 원피스에 인디언풍의 프린팅 활용	남미풍의 패턴의 원단으로 구성한 판초의 변형	히잡을 두른듯한 배두인족의 여성과 같은 이미지를 직선과 지그재그로 이루어진 패턴과 워트있는 디자인

인민복 스타일인 마오 룩은 정치적 요소가 현대 패션에 영향을 끼친 것이다. 2007년 12월 치러진 케냐 대선을 시발점으로 키워진 케냐의 정치 사태와 2008년 루오족과 키쿠유족 간의 종족갈등으로 확대되어 발생한 유혈학살 등은 케냐 국민들로 하여금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을 더욱 증폭시켰다. 이러한 국제적 사건과

케냐 출신의 미국 대통령 당선은 다양한 사회, 문화적 요소를 반영하는 패션산업으로 하여금 아프리카의 민속 의상의 다양한 요소를 현대 패션 디자인에 반영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경제적 요인은 2005년도부터 세계 경제는 국가 간의 교역규모 확대 및 국가 간 교류의 활발으로 경제

성장 및 안정적 성장을 추구하며 선진국의 부의 광범위한 확산이 제3세계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으로 사람들은 소득규모의 확대에 의하여 구매력의 증가로 이어졌으며, 이는 다양한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스타일의 개성화, 다양화의 이끌어 왔다. 이러한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을 추구하려는 세계화시도에서 2008년 미국의 경제공황은 주요 국가들에게 경제적 혼란을 가중시켰으나, 아프리카는 이 가운데 새로운 시각으로 조명되기 시작하였다. 아프리카와 같이 경제규모 및 지위 면에서는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 비해 높진 않으나 경제력이나 투자적 요인으로 가치가 높은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기 시작했는데, 기업 실적 조사기관 IBES에 따르면 EMEA(아프리카 시장) PER는 8.2배로 선진국 평균(11.7배)은 물론 이머징 아시아와 라틴 지역에 비해서도 썩 것으로 나타났으며, 닉프라이스 피델리티 인터내셔널 포트폴리오 매니저에 따르면 '아시아 산업화의 대표 수혜주인 EMEA의 투자매력은 "전 세계 원유 확인 매장량 중 80%, 금 매장량 중 85%가 집중되었다"고 분석("아프리카 성장성", 2010)하였다. 또한, 자원부족으로 많은 개발 도상국들이 에너지 인프라 구축 자체를 지구환경 훼손을 고려하여 저탄소, 친환경 정책으로 고집하는 반면 아프리카는 상대적으로 각국의 투자유치를 통한 높은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는 많은 국가들의 투자지역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이러한 아프리카에 대한 경제적 관심 역시 패션산업에서의 아프리카 에스닉풍을 나타내게 하였다.

사회, 문화적 요인으로는 전세계인들의 축제로 자리잡은 월드컵의 남아공 개최를 가장 큰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남아공 월드컵 문화행사 공동 기획자인 마코냐 로얄 트러스트(MRT)의 줄라니 음키바 회장은 아프리카에서 처음 개최되는 월드컵인 만큼 진정 아프리카 식으로 축복을 받을 필요가 있다("남아공 월드컵", 2009)며 다양한 아프리카의 문화축제를 세계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아프리카 문화적 요소를 내재한 다양한 문화행사들은 전세계인들의 관심을 아프리카 문화권으로 유도하였으며, 문화적 요소를 내재하는 패션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리라 사료된다.

이러한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요소의 영향을 사회현상학적으로 보면 현대 사회의 산업의 고도성장은 개인의 구매력 증대를 이끌어 높은 차원의 패션 상품을 요구한다. 또한, 기술력의 발전은 패션 상품의 품질 향상을 이루게 하였으며,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의 고

속화 사회에서 소비자는 최신의 패션 트렌드와 정보의 접근용이성으로 인하여 다양한 패션 정보를 입수하게 된다. 이는 소비자로 하여금 수준 높은 패션 상품선택의 안목과 패션 변화에 대한 기대 심리를 자극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러한 사회적 요인과 정치, 경제 등의 사회적 이슈 등이 반영되어 아프리카, 인도, 중국, 중동 등의 에스닉 패션이 다시금 조명 받게 되었다. 패션은 그 시대의 문화와 담론을 반영한다. 따라서, 패션은 다양한 사회요소를 형상화한다 할 수 있다. 시대 흐름의 변화는 일반적으로 인지할 수 없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다양한 시대적 요소가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앞에서 언급한 주요한 요소들이 에스닉 패션에서도 변화적 요소로 작용한다 할 수 있다.

V. 에스닉 패션의 동향과 전망

2000년대 후반인 최근의 패션 흐름에 있어서 에스닉 특징을 정리하면<표 8>, 먼저 서정적인 무드를 강조하는 1970년대 히피가 트렌드로 주목받는 추세와 맞물려 에스닉적 요소와 결합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히피 룩 특유의 산만함을 탈피하여 에스닉 무드의 절제되고 모던해진 히피 룩으로 표현되며, 프린지 장식(Fringe: 천의 가장자리에 장식하는 술), 화려한 프린트, 벨보텀팬츠(Bell-bottom: 바짓단이 넓은), 롱스커트 등으로 표현된다. 2008년 S/S시즌 이후 발표된 컬렉션에서는 러플하고 모던한 히피 스타일이나 몽환적이고 판타지한 분위기의 히피 룩 등을 에스닉과 결합하여 표현하고 있으며, 반면에, 전형적인 에스닉 패션에 고전적인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어 에스닉 경향에 있어서도 다양성과 차별성이 중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아프리카 에스닉이 주목받고 있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다. 이는 에콜로지(Ecology: 친환경)에 대한 관심으로 패션에서도 아프리카 에스닉 스타일에 주목한 것으로 보이는데, 에스닉한 프린트나 깃털 등을 활용하여 모던하게 재해석하고 있는 것이 최근의 특징이다. 아프리카 에스닉과 더불어 에스닉적 경향을 주도하는 것은 단연 오리엔탈 에스닉 무드이다. 최근 친디아(Chindia: 중국과 인도를 함께 일컫는 합성 신조어)라는 말이 생길 만큼 전 세계의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는 아시아인 만큼 패션에도 영향을 미쳐 오리엔탈 무드가 트렌드로 반영되고 있으며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의 패션은 글로벌

<표 8> 2005~2010년 에스닉 특성 분석

분 류	디자인	표현방법			컬렉션	디자이너
		디테일	직 물	색 상		
아프리카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재, 장신구에 정통 액세서리 응용 -사파리풍 -기하학적이고 원색적인 전통 문양 -식물줄기 및 동물 문양을 이용한 디테일 장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프리카 전통 소재패턴 -자연적 소재의 활용(동물가족, 식물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채색의 계열의 색상과 원색의 포인트 배색 -파스텔 계열의 디테일 색상 	Paris	Kenzo Tsumori Chisato Leonard Alexander McQueen
					Millano	Missoni Etro Angelo Marani
인도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리응용 원피스 -터번의 응용 -하렘팬츠 디자인 응용 -소리 및 사리와르 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택있는 실크 -시스루 소재 사용 -미래지향적인 메탈릭 소재 -페이즐리 문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스텔 계열 -채도가 낮아진 투명감있는 색상 	Paris	Leonard Hermes Dries Van Noten Kenzo
					Millano	Etro Missoni Angelo Marani
중국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수나 프린트 활용 -차이니스 칼라 -치파오 응용 원피스 -긴소매, 긴부츠 (소수민족 복식 응용)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 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택있는 실크새틴 -화려하고 대담한 자수 -프린트 패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붉은 계열, 금색 계열의 화려한 색상 	Paris	Leonard Tsumori Chisato Kenzo Balenciaga
					Millano	Iceberg Giorgio Armani Max Mara
일본풍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모노 V 라인 -오비응용, 오비형 벨트 -허리끈을 디테일 응용 -기모노 히퍼스타일 -전개형 드레스 -일장기 모티브 드레스 -흰화장(제페니즈 메이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린트 소재 -패턴의 부드러운 면 소재 -광택이 있는 실크새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스텔, 붉은 계열 -기모노 프린트 강조한 원색 및 무채색의 색상 	Paris	Kenzo Leonard Comme des Garçons Tsumori Chisato
					Millano	Etro Antonio Marras Dolce & Gabbana
한국풍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복 치마 응용 -수목화 프린트를 디테일에 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볍고 부드러운 쉬폰 -프린트 패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채색 계열 -채도가 낮아진 투명감 있는 색상 	Paris	Leonard Issey Miyake Comme des Garçons
					Millano	Marni Dolce & Gabbana Antonio Marras

<표 8> 계 속

분 류	디자인	표현방법			컬렉션	디자이너
		디테일	직 물	색 상		
북아메리카풍		-깃털, 가죽의 질감을 살린 프린지 장식 -독특한 인디언풍 패턴 디테일 응용	-자연적 소재 -거친 느낌의 면 (깃털, 가죽)	-흰색 -황토 계열 -검정색 -붉은색 -블루 -그린	Paris	Hermes Leonard Barbara Bui Hussein Chalayan
					Millano	Blugirl Etro Angelo Marani
남아메리카풍		-기하학 패턴의 단장식과 액세서리 -망토, 담요를 두른 실루엣과 스카프 활용 -기하학적인 문양	-거친 느낌의 모 -기하학적 패턴 -스트라이프 응용	-원색 포인트와 중간색 계열의 색상의 조화	Paris	Tsumori Chisato Comme des Garçons Leonard
					Millano	Antonio Marras Iceberg Antonio Marras Emilio Pucci
중동풍		-카프탄 응용 원피스 -차도르를 변형한 모자 -부르파를 활용	-황토 계열의 면과 실크 -무광택 검정색 실크	-무채색 계열의 색상	Paris	Tsumori Chisato Under Cover Issey Miyake
					Millano	Blugirl Max Mara Etro

별적인 요소와 아프리카의 감성이 접목된 에스닉 패션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패션들은 현대인들의 산업발달에 따른 기계화와 도시화에서 벗어나고 싶은 자연회귀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물질문명에 물들지 않은 아프리카를 동경하여 표현된 것으로 여겨진다. 전반적으로 21세기 패션에 나타난 에스닉은 보다 발전·융합된 양상으로 패션의 흐름을 주도할 것이라 사료된다. 문명 사회의 주체가 되던 서구 사회의 우월감이 동양의 에스닉이 보여주는 퀄리티 높은 예술성에 매료되어 그 가치가 재조명 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에스닉 패션은 의복으로서의 외적 수단에서 벗어나 하나의 예술적 이미지로 확대되어 나갈 수 있음도 예상된다.

VI. 결 론

현대 패션에 나타난 에스닉 경향은 1980년대의 포스트 모더니즘(Post-modernism)의 한 경향으로 볼 수

있으며, 다변화된 사회와 매스미디어의 발달, 전쟁과 테러, 경제불황 등에 대한 반작용, 자연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 등의 다양한 원인에 의해, 현대 패션의 미적 기준은 서구 중심의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 동양을 비롯한 제3세계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 패션에 나타난 에스닉 역시 다원성, 절충성, 융합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전통의 민족 복식이나 장신구를 그대로 계승하기 보다는 에스닉 이미지를 통한 전통의 현대화라는 새로운 가치를 지니게 되었으며, 민속풍의 이미지를 계승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표현을 시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대 패션의 에스닉 스타일을 재조명하고 현대 에스닉 패션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2005년 S/S부터 2010년 F/W까지 파리와 밀라노에서 열린 프레타 포르테 컬렉션의 작품 총 1,535개의 디자인을 분석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에스닉은 민족 집단이나 각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공유하며 타문화와 뚜렷이 구별되는 독특한 양

식을 차용하여 현대 디자인의 이미지로 응용되어 표현되는 양식이며, 에스닉 룩이란 이국적인 이미지들에서 얻어지는 유럽민족 이외의 세계 여러 나라 고유의 민족 의상 및 염색, 직물, 문양, 자수, 색채, 실루엣, 액세서리 등의 패션 디자인 요소들을 차용하고 전체 또는 일부에 재배치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둘째, 현대 패션에 나타난 에스닉 패션을 여덟 가지 지역별 민속 복식으로 분석한 결과, 아프리카풍 작품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인도, 일본, 중국, 남미의 순서로 두 컬렉션 모두 동일한 에스닉 형태의 비중을 보였다.

셋째, 2005년 이후 에스닉 패션의 증가 요인 중 아프리카풍의 에스닉 패션을 들 수 있는데,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 남아공 월드컵, 아프리카의 무한한 경제 성장에 대한 관심 등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요인들은 에스닉 패션에서 아프리카 에스닉 패션이 변수로 작용하는데 영향을 미쳤으리라 사료되어진다.

넷째, 2005년 이후 에스닉 패션의 특성은 전반적으로 화려하며 여러 가지 다른 이미지와의 결합을 시도하게 된다. 다양한 에스닉 스타일들이 공존하며 새로운 패션의 유형으로 나타나고자 하는 패션의 다원화 경향에서 비롯되며, 밝고 컬러풀한 색감과 태도가 낮은 투명감 있는 색상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대자연의 느낌을 간직한 난색 계열의 색상이 전면에서 부각되어 나타나는 것도 특징이다. 본 연구에서는 21세기 후반에 파리와 밀라노 컬렉션에 나타난 에스닉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하지만, 연구대상의 시기가 길고 자료가 방대하여 모든 자료를 연구에 이용할 수 없는 한계를 갖게 되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시대와 지역을 뛰어넘는 거시적인 부분에 보다 세부적이며 심층적인 에스닉 특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권하진. (2005). *아시아 에스닉 룩의 조형성과 미적가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민희. (2006). *현대 패션에 표출된 한국과 인도의 에스닉 직물 문양 이미지 비교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남아공 월드컵 동물 제물 바칠까. (2009, 10. 26). *세계일보* 자료검색일 2010, 8. 15. 자료출처 <http://www.segye.com/>
- 두산동아편집부. (2006). *동아프라임영한사전*. 서울: (주)두산동아.
- 라사라고육개발원. (1992). *복식사전*. 서울: 도서출판 라사라.
- 서봉하. (2004). 1990년대 이후 에스닉 룩의 패쇄화와 개방형의 시기학적 연구. *복식*, 54(4), 145-156.
- 아프리카 성장성 주목해야. (2010, 6. 4). *한국경제* 자료검색일 2010, 8. 15. 자료출처 <http://www.hankyung.com/>
- 엄윤경. (1994). *북아메리카 민속 의상의 수실 장식의 응용한 복식 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오세희. (2006). *에스닉 패션과 메이크업의 유형별 특성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민경, 한명숙. (1998). 북아메리칸 인디언의 복식 재료에 나타난 유럽적 요소. *복식문화연구*, 6(4), 643-653.
- 이상례. (1994). *현대 패션 디자인에 나타난 동방풍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옥순. (2007). *인도에는 카레가 없다*. 서울: 책세상.
- 장미숙. (1999). *현대 메이크업에 나타난 네오아방가르드 경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미실. (2002). 19세기 후반 전환시대 Navajo 북아메리카 직물의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40(8), 37-48.
- 조민경. (2006). *에스닉 이미지의 복식에 따른 메이크업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진경옥, 이민정. (2003). 오리엔탈리즘을 응용한 유니폼 디자인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5(5), 443-452.
- 최문정. (2007). *페루 전통 직물을 이용한 에스닉 룩 패션 디자인 연구*. Allin 브랜드 상품 개발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영옥. (2005). 현대 에스닉 패션의 특성 분석. *한국의류산업학회지*, 7(5), 481-493.
- 퍼트리샤 리프 애너월드. (2008). *세계복식문화사*. 한국복식학회 옮김 (2009). 서울: 예담.
- 홍나영. (2004). *아시아전통복식*. 서울: 교문사.
- 황춘섭. (1995). *세계전통복식*. 서울: 수화사.
- 2005 S/S-2010 F/W Womens Collection. (2005-2010). *퍼스트뷰* 자료검색일 2010, 3. 20. 자료출처 <http://www.firstview.com/>
- B'er'enice Geoffroy-Schneiter. (2001). *Ethnic style*. Kentucky: Assouline.
- Murray, Maggie P. (2007). *Changing styles in fashion*. New York: Fairchild Books.